



오 록 도 행 복 칼 럼

이명래

한국자산관리공사 선임전문위원

미국회사를 다니는 딸아이의 영국 동료가 부산을 찾았다. 바다와 어우러진 갈매길과 설 지난 금정산 등적의 고찰을 두고 끊임없이 폰샷을 올려댔다. 삼계탕집에서 부산의 아름다움과 도시의 매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 본인이 90년대 중국에서 한의학학을 공부하던 시절이었다. 대형 중국지도를 구해 기숙사 벽에 걸었다. 한 마리 수탉 형상의 중국에 묘이주머니같이 한반도가 달려 있었다. 그 후 2017년 6월 19일 해양수산부가 거꾸로 된 지도를 제작 보급하였다. 이 지도상으로는 우리나라가 태평양을 뺀아 들어는 뗏줄의 배꼽으로 보인다. 부산이 전방이고 서울은 변방이다.

한의학에서 보면 사람은 작은 우주이고 한 국가의 형상은 사람을 닮았다. 하부의 기가 약하면 뜨거운 기운이 상부로 올라 머리출혈로 사람이 쓰러진다. 수도권에 투자와 관심이 편중되는 현실 앞에 나라의 중풍이 우려된다. 뉴욕 상하이 오사카 등 제2도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나라들이 새

삼 우려러 보인다. 부산의 지리적, 역사적 자원을 두고도 망연자실하고 있는 것은 나라 전체를 두고도 손실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성장기에는 부산이 주역을 맡았다. 이제는 제조업에서 금융 관광 서비스의 4차 산업 시대이다. 2009년 국가에서는 서울과 함께 부산을 금융중심도시로 지정했다. 문헌동에는 63층 국제금융센터가 자리 잡고 그 가족들이 대연철 신지구에 동지를 타고 있다. 삶의 터와 가족을 두고 서울을 떠나온 그들의 한신이 헛되어서도 안 된다.

부산이 명실상부한 국제금융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추가 금융공공기관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4차 금융산업의 블록체인특구로 지정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북한개발은행설립추진 부산이 해양시대 금융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부산은 해양국경도시이다. 연중 60일간 대마도를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부산의 앞마당을 통해 대

금융·관광·역사가 녹아있는 남구

국어로 4개 언어를 채택한 스위스처럼

외국어특구로 지정하면 어떨까

양으로 넘나든다. 남해와 동해가 양수경장으로 오륙도에서 만난다. 각처에서 불리는 발길로 갈매길은 터져나가는 현실이다. 온난한 휴양지로서 홍콩의 해상버스타 오사카의 해상야구장도 설치할 수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기에서 동백섬까지 해상케이블가 설치가 논의되고 있다. 세계 유수 여행회사는 세계인이 가보고 싶은 도시로 부산을 선정했고 서울보다 잠재력이 큰 도시라는 부연설명도 있었다.

부산은 국제평화도시이기도 하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피란수도의 보물들이 산재해 있다.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은

일제강점 남구에 터를 잡고 있다. 옛그제는 부산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긴 영국의 6.25참전용사가 7번째로 유엔공원에 안장되었다. 매년 11월1일은 온 세계가 부산을 향한 날이다. 7번째 진행된 '턴투워드 부산'이 일개 참전 캐나다인의 호루라기 소리에서 전통소리로 커지고 있다.

부산이 국제무대에 서기 위해 싱가포르와 홍콩, 상하이에 뒤질 게 없다. 남구는 해양수도의 예인선이 될 수 있다. 이기대 유엔공원을 안고, 오륙도를 부산의 수문장으로, 문헌 63층 국제금융센터를 부산의 랜드마크로 포석을 두고 있다. 금융기관 추가 이전과 북한개발은행유치에 부산시의 역할만 바라보고 있었서는 안 된다. 매주 금요일 많은 국제금융센터직원들이 서울행 KTX로 향하고 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부산의 홍보자원이다. 약취의 동전을 두고 국제금융도시로 불릴 수 있을까. 오륙도선 트램의 시너지효과를 넓혀 백운포 일대에 추가 금융기관부지를 모색해야 한다.우물쭈물하다 국제금융도시의 파이를 제3의 도시에 나



해양수산부가 제작한 '거꾸로 세계지도'의 일부분.

뉘어하는 시형작을 겪고 있지 않는가!

또 한 외국인의 지적을 흘려버릴 수가 없다. 언어와 규제 문제다. 스위스가 적합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4개 언어를 국어로 지정했다.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영어와 중국어통용은 물론 다양한 화제가 통용된다. 대륙횡단열도의 시·종점과 동북아물류중심도시 허브로 부산이 거듭되기 위해선 남구의 외국어 특구지정은 블루오션이다. 농촌 도시 거장이 훨씬 전에 외국어특구로 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다. 턴투워드 부산과 가보고싶은 도시로 부산의 명성과 잠재력은 지구촌에 이미 알려졌다. 집안의 꽃소식을 언제까지 바깥을 빌어 들을 수만 없다.

■ 명예기자의 시선

‘I♥Namgu’ 브랜드를 꿈꾸며

사람들은 브랜드에 열광한다. 브랜드는 욕구를 끌어내기에 충분하고 가치와 상징성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내가 사는 이 곳은 가치와 상징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필자는 얼마 전 결혼을 했다.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많은 곳을 다녔는데, 제일 염두에 둔 것은 주거환경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그리고 시민과의 교류성이었다. 부산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각 도시의 매력이 전부 달랐기에 심사숙고하던 필자에게 남구는 새로운 매력이었다. 사물팔달로 뻗은 도로와 넓은 해안을 가졌고 동시에 다양한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커피를 이야기할 때 스타벅스가 연상되고 에펠탑에서 파리가 떠오르는 것처럼 스토리가 있는 곳에는 브랜드가 존재한다. 브랜드는 다양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의 대표성과 차별성이 무엇이라는 것이다.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브랜드 디테일이 필요하다. 남구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도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소재거리가 풍부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학군, 재개발, 투자의 요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반기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전 세계 도시 브랜드 사례 중 가장 성공한

곳이 뉴욕이다. 1970년대 어둠의 중심이었던 뉴욕시가 도시의 자부심과 공동체성을 높이기 위해 내세운 것이 'I LOVE NEW YORK'이다. 디자인이런 밀턴 그레이저는 'I♥NY' 로고를 디자인하고 지역슬로건을 상징화해 브랜드에 성공했다. 관광지로서 지역 특색과 경제성을 염두에 둔 것은 주거환경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그리고 시민과의 교류성이었다. 부산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각 도시의 매력이 전부 달랐기에 심사숙고하던 필자에게 남구는 새로운 매력이었다. 사물팔달로 뻗은 도로와 넓은 해안을 가졌고 동시에 다양한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남구 역시 역사와 문화의 기본기가 있는 도시이다. 전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이 그별고 유엔기념공원을 중심으로 유엔조각공원, 평화공원,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유엔평화기념관 그리고 문화공원의 메카 부산문화회관과 1만점 이상의 유물을 보유한 부산박물관을 빼놓을 수 없다. 전혜의 오륙도와 신선대, 이기대공원까지 정말 다양한 색깔이 있는 도시이다. 이제는 디테일을 높여 브랜드를 해야 하는 시기일지 모른다. 세계는 도시 브랜드에 집중하고 있다. 가지고 있는 강력한 소재거리를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테마 연구와 스토리 발굴을 이어간다면 더욱 매력 있는 도시가 될 것이고 시민들에게 'I LOVE NAMGU'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정인영

■ 신시대 쿵트

아내 콧소리의 비밀

곽태욱(수필가)

지구대를 나서자 파리를 들고 있던 불쾌감이 스멀 스멀 기어 나왔다. 아무렴 죽마고우를 고소까지 할 건 뭘가 싶었다. 가해자는 그 놈이지 내가 아니다. 그 생각만 간절할 뿐이었다. 마침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실 그 놈이 저지른 고소의 중심에는 아내가 있었다. 아니 엄밀히 말해 아내의 콧소리가 발단이었다. 아니 아내의 콧소리를 이용하려는 그 놈의 머릿속이 문제였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그 놈이 미운 것은 둘째 치고 아내의 콧소리가 은근히 거슬리는 것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당신 힘들었나 보다.”

아내의 콧소리에 애잔함이 묻어있었다. 아내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힘들었다 보네. 미안해. 여보. 나 때문에...”

그때도 그에게서 대답이 없자 아내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웬지 울적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 놈 표현을 빌리자면, 아내의 콧소리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애교덩어리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부러웠으면 애간장이 녹는다고까지 했을까. 제 아내는 무뚝뚝해서 싫다. 그 무뚝뚝함을 바위에까지 비교하는 놈은 그 놈 뿐일 게다. 그날도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 놈이 그랬다.

“넌 확실치 않잖아. 아내의 콧소리만 들으면 온종일 쓸렸던 피로가 한순간에 싹 사라지지? 언제부터 애교덩어리 아내가 되었나? 비빔 쏘 가르쳐 주러. 나는 경조사 사나이와 사는 것 같아.”

그러면서 술잔을 비우며 히죽히죽 웃었다. 그뿐이면 괜찮았는데 취기가 돌아 그만 헛소리까지 튀어나왔다.

“아야. 니 마누라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만 같이 자고 가면 안 돼?”

“이 자식이, 아무리 술이 취한다지만, 할 말 안 할 말 가려가면서 해!”

그는 두어 걸음 떨어져 있는 정수기에서 물 한 잔을 그득 받았다. 냉수라도 벌컥거리지 않으면 화를 식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놈은 숙도 숙도 모르고 또 속을 끓였다.

“하룻밤만 같이 자자고 해라.”

“아니, 남의 마누라랑 하룻밤만 같이 자자고? 너 말 다 했어!”

물 한 모금을 꿀꺽 넘기자마자 그는 입에 땀던 물컵을 확 쏟아 부었다. 그 놈이 탄박 어금니를 깨물며 동공을 키웠다.

“니 지금 내 발에 물 뿌렸어! 마누라 잘 왔다고 나에게 유세부리는 거냐? 일부러 물 뿌렸지? 이런 엄연히 폭행이다.”

오늘따라 그 놈이 부리는 주사가 평소와 다른 듯했다. 이대로 가다간 그 놈 귀싸대기라도 갈겨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았다. 그만 자리를 떠났다. 그 놈도 얼른 따라 나왔다. 그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는 데 그 놈이 술값을 내겠다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 놈을 살짝 밀었다. 그 놈도 지지 않으려고 그를 가로막았다. 서로 욕심전전하는 사이 그 놈이 그만 엉덩방아를 찼었다. 그가 일으켜 세우려고 손을 뻗자 그 놈이 손을 뿌리쳤다. 그래도 그가 다시 손을 내밀자 벌써 일어난 그 놈이 멍실잡이를 하려고 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귀싸대기라도 때릴 듯 팔을 치켜 올렸다. 그 놈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뺨을 내밀며 히죽히죽 웃었다. 그는 더 이상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아 도망치듯 술집을 빠져나왔다. 그 놈이 술값을 지불했는지는 관심도 없었다. 집으로 무사히 들어갔는지도 관심가지 않았다. 뒷날 그 놈에게서 전화가 왔다.

“만약 네 와이프 우리 집으로 안 보내면 너를 폭행죄로 신고할 거다. 공갈죄는 거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는 벌컥 화를 냈다.

“그만해라. 네 벌써 치매 온 거 아니지?”

그 놈은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다. 웬지 고개가 아웃구러졌다. 왜 갑자기 남의 아내의 콧소리에 집

착할까 싶었다. 말 못할 사정이 생겼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다른 한편에서는 불쑥불쑥 미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구려 땅거미가 내린 뒤였다. 지구대 경찰관이 그의 집을 찾아왔다. 그 놈이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지구대로 임의동행 한 그는 조사를 받았다. CCTV 화면에는 그가 그 놈을 밀어 엉덩방아를 찼었고, 그가 그 놈을 향해 귀싸대기라도 때릴 듯 팔을 치켜들었으며, 그의 손에 빈 컵이 들려져 있는데, 이도저도 아닌 것은 오직 그 놈이 아쭈거리는 미소였을 뿐이었다. 한시 바빠 그 놈 미소가 머릿속에서 지워졌으면 싶었다. 그가 집으로 들어서자 아내는 향긋한 레몬차를 내놓았다.

“이걸 마시면 속이 시원할 거예요.”

정말 향긋한 레몬 냄새에 형용사건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다. 아내는 거를 앞에서 웃대무릎을 고쳤다. 잠시 뒤 그는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섰다. 지하철을 탔다. 부부가 향한 곳은 그리 멀지 않은 종합병원 이비인후과였다. 외래접수처 대기실에 앉았을 때 아내는 누군가와 휴대문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윽고 간호사가 그의 아내를 호명했다. 진료실로 들어갔던 아내는 오래 걸리지 않아 대기석으로 나왔다. 진료실을 들어갈 때보다 한결 밝은 표정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의 목소리에 반가움이 묻어 있었다.

“담이 나왔대요. 요즘은 코피 나는 것이 덜하긴 해요. 코박지도 잘 안 생기구요. 콧소리로 조금씩 맑아지고.”

아내는 기분이 좋은지 앞장서 병원을 나섰다. 다시 지하철을 탔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아내의 손등을 토닥였다. “지금의 전셋집 들기까지 정말 당신 고생 많았어.”

아내는 배시시 웃었다.

“나보답 당신이 더 고

생했는걸요.”

“아니야. 당신 증세가 그렇게 심해지는 줄도 모르고...”

사실 처음엔 별일 아니겠거니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코 속에는 코박지가 자주 앉고, 코가 갑갑하다고 하소연했다. 어쩌다 코를 파려고 하면 그만 코박지까지 쏟아지곤 했다. 아내의 병명은 부비동염(축농증)이었다. 땀새에도 조금씩 무더지는 것 같았다. 어쩔 수 없이 10여 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치료에 전념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증세가 호전되고 있다. 들이켜 보면 결혼하자마자 시작된 탓이었다. 때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덕분에 지금의 전셋집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뿐인 딸은 외할머니 손에 키워졌다.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놈은 남의 아내가 애교덩어리니 애간장이 녹는다는니 했던 것이다. 귀신이 씨 나락 까먹는 거야 당연하다지만 슬마 그 놈까지 씨 나락 까먹을 줄 어찌 알았을까. 그의 아내가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 친구 집에 가야 해요.”

그가 의외라는 표정을 짓자 아내는 휴대폰을 꺼내 보였다. 그 놈의 아내가 보낸 문자에는 그 놈이 제 안한 두 가지 내용이 있었다. 하나는 근사한 저녁 만찬이고 또 하나는 하룻밤 동침이었다. 고소는 조금 전 취하했으니 텅까지 없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런 걸로 봐서 그 놈은 애당초 이혼 결심 전제제를 치르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이다. 오직 아내의 콧소리 비빔을 전수하길 바란 것 같았다. 하지만 어쩌랴. 하룻밤 동침만으로 아내의 콧소리 비빔이 전수될 수도 없겠지만, 그 콧소리는 전셋집과 맞바꾼 것이었다고 하면 그 놈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쩌면 배달음식으로 근사한 저녁 만찬을 차려놓고 씨 나락 까먹는 소리만 해대지는 않을 게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 다음 정차 역을 알리는 전광판이 깜빡거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내 손을 잡았다.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7, 4078, 1225honey@korea.kr

산행을 떠나요

(2019. 3.)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동	대삼산악회	3/10(일)	거제 해금강	010-8565-8359
	연포산악회	3/10(일)	청도 화악산	010-2534-2536
	약천산악회	3/20(수)	강진 가우도	010-4655-4370
	백호산악회	3/13(수)	강진 백련사	010-3837-6206
	산사릉산악회	3/17(일)	밀양 백운산	010-2024-2882
용호동	남구자유산악회	3/3(일)	남해 금산	010-5576-8142
	용신산악회	3/10(일)	창녕 남지개바리길	010-4657-7051
	청산산악회	3/3(일)	문경 오정산	010-8008-2087
	해월산악회	3/17(일)	창녕 화왕산	010-3560-3409
	산이름아산악회	3/24(일)	하동 성제봉	010-9329-3560
용당동	환경산악회	3/3(일)	산청 둔황산	010-3575-3448
	용호산악회	3/24(일)	광양 꽃비산	010-9497-4575
	산오름산악회	3/23(일)	고성 연화산	010-7223-2277
	21세기산악회	3/10(일)	함안 자양산	010-7563-1943
	용마산악회	3/10(일)	광양 꽃비산	010-2692-1170
문현동	김만동 오솔길산악회	3/19(화)	여수 하와도	010-8287-1192
	우암산악회	3/3(일)	통영 백방산	010-3585-5848
	문현2동산악회	3/3(일)	광양 백운산	010-9320-4121
	문사산악회	3/10(일)	진안 구룡산	010-8466-8662
	원부리산악회	3/17(일)	광양 백운산	010-4564-7769
문현동	산누리산악회	3/3(일)	거제 지도산	010-4035-3432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 일자리 알림판

〈2019. 2. 22.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용호재가노인 복지센터)	남구 관내	재가 요양보호사	1명	19. 02. 22. ~ 채용시	시급 10,020원	010-2895-6737
세마을운동 남구지회	대연동	회계사무원	1명	19. 02. 22. ~ 채용시	월급 1,750,000원	051-633-7642
즐거찾기COM 스쿨학원	대연동	컴퓨터 학원강사	1명	19. 02. 22. ~ 채용시	월급 1,600,000원	051-637-0704
퀵콜	문현동	고객상담원	2명	19. 02. 22. ~ 채용시	월급 1,887,100원	051-955-5555
주식회사 라파엘케어	문현동	사회복지사	1명	19. 02. 22. ~ 채용시	월급 2,000,000원	051-320-8347
OSS	우암동	용접원	1명	19. 02. 22. ~ 채용시	연봉 24,600,000원	010-3977-7521
윤선생 아이지이스이	문현동	영어강사	1명	19. 02. 22. ~ 채용시	연봉 20,000,000원	051-631-9961
새려소양병원	김만동	조리사 및 조리원	1명	19. 02. 22. ~ 채용시	월급 2,060,000원	070-4949-9926
빅터	대연동	스포츠리뷰 디자이너	1명	19. 02. 22. ~ 채용시	월급 1,750,000원 이상	051-949-2412
해맑은유치원	용호동	방과 후 교사	1명	19. 02. 22. ~ 채용시	시급 8,350원	051-624-0630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8 Fax. 607-4349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주간 김 성 한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77, 4078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동네 이발소에서 찾은 삶의 싹표

일요일 아침이 오면 일상의 한 부분처럼 할아버지는 잠에 취한 나를 깨워 목욕탕에 갈 준비를 하느라 분주해했다. 학교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어 놀아 온몸이 묵해있던 때를 뺀 허물을 벗기듯 열심히 씻겨내고 나면 할아버지의 알 수 없는 뿌듯한 표정을 보았던 것 같다.

이발소에서 꼭 머리카락만 자르는 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지 날.

할아버지는 가족행사나 특별한 날에는 이발도 같이 하겠지만 평소시에는 이발소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 모락 나는 수건을 얼굴에 덮고는 10분 가량 누워 계셨다. 그리고 수건에서 피어오르던 열기가 식었을 때 이발사 아저씨는 얼굴에 덮힌 수건을 걷어내고 작은 플라스틱 통에 비누를 문질러 거품 가득 문헌 브러쉬로 할아버지의 뺨을 타고 턱까지 문개며 바르후, 길고 날카로운 면도칼로 '저저저저' 소리를 내며 할아버지의 얼굴에 돌아난 수염들을 깎아 내렸다.

시간이 흘러 수염 깎는 할아버지를 동경하던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고 난 이후, 할아버지 수염을 깎아내는 그 이발소의 풍경이 저러난 수염을 청결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공간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동네에 이웃으로 살아가던 그들이



가정을 꾸려 가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일상에선 표현에 서툰 그들이 동네이발소에서는 말하지 못했던 근심을 꺼내 놓으며 남자들의 해우스라고 불리던 장소였다.

면도와 이발이 끝나면,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겨주고 그 장면 하나하

나가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가족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남자들은 그 순간 만큼은 타인에게 자신을 모두 믿고 맡기던 일상은 아마도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이발소에서 의 짧은 순간이 아닐까 싶다.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한순간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 그 언젠가 이발소라는 단어가 추억으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 이발소는 단순히 우리 시대 아버지들에게는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이며, 가슴 깊이 묵혀 놓은 사연들과 그 누구에게도 편히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그곳에 털어내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습

이기도 했다.

남자로서,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지금 이 시대의 아버지들에게 과연 그런 공간 하나 좁은 허락된 것일까?

글·사진=이동근 명예기자